

한국 다이빙 광주서 도약...여자 수구 첫 골에 눈물 '핑핑'



광주세계수영대회 결산

<4> 기록도 화제도 풍성

수영과는 거리가 먼 도시에서의 대회였고 한국을 대표하는 슈퍼스타도 없었다. 하지만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는 풍성한 기록과 화제, 희망을 남긴 대회로 기억될 것이다.

대회 초반 분위기를 살린 건 다이빙의 김수지였다.

그는 여자 다이빙 1m 스프링보드에서 깜짝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다이빙 종목 사상 한국의 첫 메달이었다. 김수지는 이 메달로 박태환에 이어 세계선수권대회에서 두 번째로 시상대에 오른 선수가 됐다.

한국 다이빙은 광주를 도약의 무대로 삼았다. 예선을 치른 10개 종목 중 8개 종목에서 결승에 올라 역대 최고의 성적을 냈고, 역대 최고 순위도 잇달아 갈아치웠다.

안방에서 한국은 '첫걸음'을 내딛기도 했다.

수구 대표팀은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첫 출전 그리고 최다 점수차 패 기록을 썼다.

'강호' 헝가리와 예선 1차전을 치른 여자 대표팀은 경기가 끝난 뒤 핑핑 눈물을 쏟았다. 이날 한국이 시도한 수렁은 3개에 불과했고, 이마저도 골로 연결되지 않았다.

다이빙 8개종목 결선 최고 성적

경영서 한국 신기록 5개 나와

쑤양 도핑 논란 빛바랜 4연패

드레셀 하루에만 금 3개 따기도

잇단 세계 신기록 10대 돌풍

경기는 0-64 최다 점수차 패였다.

전문 수구선수 한 명 없이 중학생 2명, 고등학생 9명, 대학생 1명, 일반선수 1명으로 급조된 한국 대표팀은 러시아와의 2차전 뒤에도 눈물을 쏟았다. 대회 목표였던 '한 골'이 경다술의 손에서 만들어지면서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오프워드 수영에서도 새로운 도전이 이뤄졌다.

여자 4명·남자 4명의 선수가 '수영 마라톤' 오프 워터에서 처음 세계선수권대회 물살을 갈았다. 개최국 자격으로 여수 앞 바다로 향한 이들은 자신과의 싸움을 하며 첫 기록을 남겼다. 백승호의 부상투혼도 인상적이었던 한국의 데뷔전이었다.

한국 아티스틱 수영팀도 최고의 환호 속에 눈물의 연기를 선보였다.

등록 선수가 100명도 채 되지 않는 비인기 종목. 이번 대회에서 한국은 7개 종목에 11명의 선수를 내보냈다. 특히 단체 종목은 16년 만에 세계선수권대회에 모습을 드러냈다. 처음 출전한 프리 콤비네이션 중



지난 20일 광주시 서구 염주체육관에서 열린 아티스틱 수영 프리 콤비네이션에서 한국팀이 사상 첫 결승에 올라 화려한 연기를 펼치고 있다.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목에서는 결승 진출 성과도 냈다.

하이다이빙은 한국 선수 없이 가장 눈길을 끈 종목이 됐다.

27m(여자 20m) 높이에서 펼쳐지는 '3초'의 예술을 보기 위해 사람들이 몰렸다. 대회 개막전 가장 먼저 입장권이 매진될 정도로 아찔하고 낯선 종목에 광주는 열광했다.

'수영의 꽃' 경영에서는 세계적인 스타들이 연일 화제를 뿌렸다.

중국의 쑤양이 자유형 400m 4연패에 성

공했고, 자유형 200m에서도 금메달을 획득했지만 금지약물 논란에 따른 '쑤양 패싱'으로 가장 불명예스러운 화제의 인물이 되고 말았다.

미국의 카엘렌 드레셀은 6관왕에 오르며 '펠프스 후계자'의 면모를 보였다. 그는 지난 27일에는 하루에만 3개(자유형 50m, 접영 100m, 혼성 계영 400m)의 금메달을 쓸어들었다.

'무서운 10대'들도 화제의 중심에 섰다. 아리안 티트머스(19·호주)가 '여제' 케

이티 러데키(미국)의 여자 자유형 400m 대회 4연패, 마거릿 맥닐(19·캐나다)은 사라 세스트림(스웨덴)의 접영 100m 4연패를 저지했다. 크리슈토프 밀라크(19·헝가리)는 남자 접영 200m에서 10년 묵은 '수영 황제' 펠프스의 세계신기록을 갈아치웠다.

리건 스미스(17·미국)는 여자 배영 200m에 이어 여자 400m 혼계영에서도 새로운 세계신기록을 만들어냈다.

한국 경영은 냉정한 현실을 실감해야 했다. 여자 개인혼영 200m에서 6위에 오른 김

서영이 한국 경영 유일의 결승 진출자였다. 준결승까지 진출한 선수도 이주호, 박수연, 박수진 세 명뿐이었다.

5개의 한국신기록이 나왔지만 4개의 기록은 계영에서 나왔다. 개인종목 신기록은 자유형 50m의 양재훈이 유일했다.

하지만 남자 경영 대표팀의 막내 김민섭(15·여수 문수중) 등 한국 선수들은 세계적인 무대를 통해 '경험'이라는 귀한 자산을 쌓았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온라인 홍보·콘서트...마스터즈대회 분위기 띄우기

5일 남부대서 축하 콘서트

대회기간 광주 문화페스티벌

자원봉사자 교육 등 준비 박차

대거 출연해 광주를 방문한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 선수와 관광객들의 흥을 북돋울 것으로 기대된다. 윤수일, 양수경희 등 추억의 7080세대와 장운정, 윤수현 등 국내 정상급 트로트 가수들이 출연해 관객들과 호흡을 맞출 예정이다.

이번 콘서트는 누구나 입장할 수 있는 무료공연으로, 2000여명이 관람할 수 있다.

조직위는 개막 콘서트의에도 각종 문화 행사를 준비중이다. 수영동호인 행사인 점을 고려해 남부대와 염주체육관, 여수엑스포광장 등 경기장과 선수촌, 5·18 민중광장 등지에서 대회 기간인 5일부터 18일까지 광주 문화페스티벌을 열 계획이다.

이 기간 동안 조직위 자체 문화행사 및 아시아문화전당과 광주문화재단 등을 연계한 다양한 문화행사 공연이 열릴 예정이다.

마스터즈대회를 앞두고 온라인 홍보도 본격 추진된다. 조직위는 홈페이지에 대회 경기 일정, 경기시설, 교통정보 등 최신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문화행사와 관광·음식

등의 정보 가이드를 영상으로 제작해 소셜 미디어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

각 경기장 별로 인식률 교제도 진행되고 있다. 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7개 후원사 중 4개 후원사가 마스터즈대회에서 빠지는 등 대회 후원사 변경으로 A 보드, 패널, 배너 등 홍보물, 기록계측장비, 통신망, 전광판, 음향 장비 등에 대한 교체 작업 등이 진행중이다.

마스터즈대회 전제 자원봉사자 1300여명 중 새롭게 투입되는 자원봉사자 679여명에 대한 자원봉사 소양교육도 31일 진행됐다. 수영선수권대회를 성공적으로 마친 만큼 세계수영동호인의 축제인 마스터즈대회도 성공적으로 치루기 위한 복무규칙과 근무요령 등의 소양교육이 이뤄졌다.

한편, 마스터즈대회 개최식은 대회 시작 후 3000명의 선수가 참가하는 경영경기 시작일인 8월11일 오후 7시30분 'Plaing Water'라는 주제로 남부대 우정의 동산에서 개최된다. /최권일 기자 cki@

요즘따라 더 비장해지는 봉선화 노랫가락



(276) 봉숭아

"울 밑에 선 봉선화야 네 모양이 처량하다/길고 긴 날 여름철에 아담답게 꽃 필 적에/어여쁘신 아가씨들 너를 받쳐 놓았노다"

일본의 수출 규제에 의한 반일 감정이 요즘 여름날씨보다 더 뜨겁다. 일본의 경제 보복에 맞서 안사고 안가고 안타고 등 불매운동에서 더 나아가 일본에 대한 국민 행동강령까지 등장했다. 어떻게 해야 극일(克日)하고 승일(勝日)할 수 있을까 고민이 깊어지는 날들이다.



고정희 작 '뜰에 봉숭아'

시절이 하 수상해서 시골집 뜰에 핀 봉숭아꽃을 보는 마음도 복잡하다.

언제나처럼 어린 시절 손톱에 봉숭아 물들이던 추억 속 한 페이지를 떠올려보지만, 오늘날만큼은 일제 강점기에 나라 잃은 처량한 신세를 달래며 애절한 민족의 염원을 담았던 노랫가락이 먼저 비장하게 귓가에 맴돈다.

우리 지역 여성미술인의 선구로서 손꼽히고 있는 고정희작가(1937~)의 '뜰에 봉숭아' (2013년 작)는 여름날 풀썩이 있는 곳에서는 흔하게 만날 수 있는 봉숭아꽃을 여리고 순박하게 묘사한 작품이다.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지 70여년 이상을 그림과 함께 살아온 고정희 작가는 '아파트 베란다에 좋아하는 꽃들을 키우고 있는데, 어느 날 피약벌에 지쳐있는 봉숭아꽃을 보고 어린 시절 추억이 방울방울 떠올라

여름풍경의 상징으로서 화폭에 꽃시리즈를 담았다"고 들려준다.

무더위에 늘어져있는 봉숭아꽃에 민족의 감성을 감정이입해서인지 화사하면서도 수줍고 은은하면서도 자신감 있게 표현한 일색이 강인해보인다.

광주사립대학 미술과를 나와 교단에서 후학을 길러왔던 고정희작가는 퇴직 후 더욱 왕성하게 작품 활동을 펼쳐오고 있는 원로화가. 꽃시리즈에 이어 최근에는 알래스카여행을 다녀와 여행 중에 만난 산과 풍경 작업에 여념이 없다고 한다.

<광주시립미술관학예관·미술사박사>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옥상지붕공사
옥탑이 없는 평 슬라브 주택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 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슬라브방수시공모습

철재시공모습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 30-0934833호 제 30-0949873호 특허청

모던건설 (트윈스틸) 사공문의 062)531-3530 H.010-9229-3530

광주보청기 난청센터

보청기

무료체험·출장

직접 체험 후 결정!!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윙윙~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362-3336

광주 돌고개 2번출구 대형약국 3층